

[...] **윤애영(Aiyoung YUN)** 의 비디오 작업은 꿈과 무의식 속에 산재한 기억의 파편들을 찾는다. 그녀의 비디오 작업들에서 누드 자화상을 포함한 인체 이미지들은 공간 속을 부유하는 존재로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작가의 내면적, 주관적 시간의 의식에만 존재한다.

(**교차**) 는 정면에 안개가 짙게 낀 숲과 물속의 풍경이 결합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공간에 여래개의 투명 천 스크린들이 배치되고, 그 스크린들 위로 별거벗은 채 뛰어가는 아이의 이미지가 투사되어 배경의 풍경과 교차, 분리된다.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 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웅장한 사운드가 퍼지는 공간 속을 유령처럼 배회하는 아이와 함께 관람객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에 동반한다. 현실의 아득함과 기억의 생생함의 괴리감, 잡히지않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공포의 체험이 뒤따른다.[...]

Catalogue : 또 다른 이야기
“ 이어가는 이야기 ” 중에서

강승완
한국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

Aiyoung Yun's video art is a search for the fragments of memory in dreams and the unconscious. The bodies drifting through the space of her works, including her nude self-portraits, exist not in the time of past, present or future but only in her interior, subjective time.

In **Intersection**, several transparent screens are placed in the space in front of a mixed image of a forest shrouded in thick fog and under water scenery, and images of a naked, running child is projected on those screens, thus blending and fragmenting with the scenery in the background. Inside this space, with a soundtrack of the natural sounds of birds, wind and water, the viewers accompany the ghost-like child on a journey back in time, in search of unknown worlds. We are made to experience the disjuncture of a fading present and vivid memories, the anxiety of not being able to grasp the roots of our identities, and the dread that makes us want to evade these things. [...]

Catalogue : “ A second talk : Contemporary art from Korea and Japan”
In *A Continuing Conversation*

Seungwan KANG
Curator,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